

이화어문논집  
제2집

ISSN : 1229-7224(Print)

---

제주 方言의 時相 연구 - 접속 접미사 -단/-당, -안(언)/-앙  
(영)을 중심으로 -

康貞姬

**To cite this article :** 康貞姬 (1978) 제주 方言의 時相 연구 - 접속 접미사 -단/-당, -안(언)/-앙(영)  
을 중심으로 -, 이화어문논집, 2, 141-155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http://www.earticle.net)

# 제주 方言의 時相 연구

—접속 접미사—단 / —당, —안(언) / —앙  
(영)을 中心으로—

康 貞 姬

## 차 례

- I. 서 언
- II. 시제 . 상
- III. —다가, —아(어)서의 시상의미.
- IV. —단 / —당, —안(언) / —앙(언)의 시상의미
- V. 결 론

### I. 서 언

종래 국어 문법에서 시상(tense-aspect "연구는 주로 용언의 종지법과 관형법에 한해서 행해져 왔으며 접속법 미사에 의한 접속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진했다. 종래 이 부문에 대한 연구는 접미사 각각을 그 의미 혹은 기능이 대등, 종속 접속인가에 따라 분류, 정리하는데 그쳤다. 그래서 본 연구의 의도는 이미 분류, 정리해 놓은 접미사들 중에서 시상과 관계되는 행위 연속 접미사<sup>2</sup>인 —다가, 와 —(어)에서를 살펴보고, 한국어라는 동일 언어권에 속하는 제주 방언에서 이에 대응하는 —단 / —당, 과 —안(언) / —앙(영)의 시상 형태의미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진전시킴에 있어서 전제로 해야 할 것은 시제

1. 김,석득의 용어를 따름
2. 양,인석의 용어를 따름

(tense)와 相(aspect)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 II. 시제. 상

現代 국어의 時制가 하나의 문법범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08년 崔光玉의 「大韓文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후 학자간에 그 체계를 달리하는 異見이 생기기 시작하여서 이른바 시제 접미사를 시제 혹은 相만의 단일 의미를 부여하는 一元的 분석을 하느냐 시제—相과 같이 서로 다른 범주의 의미를 동시에 부여하는 二元的 분석, 또는 法(mood)까지 부여하는 三元的 분석을 하느냐 하는 문제점을 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시제론이 대두하게 된 이유는 이들 용어의 개념 규정의 차이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제와 相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南基心은 “時制란 時間의 흐름의 線上에서 談話時와 事件時 혹은 事件時 相互間과 談話時 사이의 先後關係를 보이는 概念”이라고 했으며 J. Lyons는 “시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문장 속에 있는 동작이나 사건시(the time of the action, event), 혹은 사건의 상태(state)를 발화시(the time of utterance)로 관련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시제는 발화와 문장의 동시적인 특징인 指示的인 범주(a deictic category)”라고 밝혔다. 이렇게 볼 때 시제란 언어(상황) 표현에 있어서 발화시를 현재로 하는(the time of utterance being 'now') 인간의 주관적인 개인시간(personal time)관념이 한 공간에 있어서 사건 A와 사건 B 사이의 시간의 이동관계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相이란 원래 Russian의 Vid의 번역어로서 슬라브 諸語에서 동사들의 inflection(굴절)에 완료(perfective), 미완료(imperf-

3. 남 기심(1975), “現代國語 時制에 關한 問題.” 「現代國語文法」, 南基心. 外 2人(공편), 대구, 계명대학 출판부, p. 195.

4. J. Lyons(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 Press. p. 305.

5. 앞 책, p. 314.

ective)를 구별하기 위해서 쓰인 말이다. 러시아어에서는

perfective            imperfective

① pro-čital : čital

② za-pis-al : za-pis-yu-al

과 같이 접두사나 접미사가 바로 相의 형태를 형성하기 때문에 문법의 한 범주로서 독립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물론 相은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어떤 동작이나 사건 속에 있는 시간적 윤곽(contour)이나 동작이나 사건 속에서 시간적 幅이 어떻게 펼쳐져(temporal distribution)<sup>6)</sup>있는가를 보이는 것이다. 여기서 시간적 幅이라 함은 동작 혹은 사건의 시작과 끝을 연결시켜 주는 과정(process)을 말한다. 따라서 相이 시간성의 자질(feature)를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과 동작이나 사건을 어느 점에서 관찰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시해 준다. 그런데 “相은 시제와는 달리 指示的인 범주가 아니며 또한 발화시와는 무관하다”라고 하여 相과 時制를 각각 달리 一元的으로 본다면 이른바 시제 접미사라고 일컫는 형태소가 ‘시제’와 ‘양상’을 나눌 수 없는(未分化) 그 둘의 ‘혼합자질(混合資質)의 융합체’<sup>7)</sup>인국어에서는 相과 時制의 개념규정에 다소 차이점이 생기게 된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相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相이란 동작이나 상태를 그 과정에서 본 여러 모습을 동사류의 一定한 굴절 접미사의 배합에 의하여 파악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의 올바른 시제 체계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형태소 배합체에 시제 혹은 相을 단독적으로 부여하기 보다는 이 둘의 양면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1. 相의 분류 기준에 관한 검토

이 부분에서는 접속 접미사의 시상형태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직

6. Hockett,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 Y., p. 237을 Lyons의 앞 책 p. 315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다.
7. Lyons(1968). P. 315.
8. 김 석득(1974). 「한문연구」, 1, 연세대학교 한문분화연구소, p.112.

접적으로 필요한 각각의 相에 관한 개념을 검토하려고 한다.

국어의 相은 이승녕(1961)의 15C 국어에 대한 5종류, 현대 국어에 대한 김민수(19 )의 5종류와 이인모(1970)의 6종류로 분류되었으며, 방언으로는 제주 방언의 정동사 어미에 대한 현평효(1974)의 4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 직접 필요한 것은 완료상, 미완료상, 지속상 그리고 진행상과 중지상이다.

완료상(perfectif, perfective, perfect)—일반적으로 行動이 이미 끝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인모氏는 시발상, 종결상, 결과상, 순간상을 이에 분류하였다. 그런데 행동의 '완료'란 이미 동작이 아니라 상태가 된다. 따라서 필자는 좀더 넓게 이를 정의하고자 한다. 즉 완료된 동작이나 상태가 그 과정의 귀결점(à son terme)에 도달되어서 완결된 상태<sup>9)</sup>가 드러난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J. Marjeau의 effectif와 이인모氏의 결과상과 종결상의 내용을 합한 것이 된다.

미완료상(imperfectif, imperfective, inperfect)—Senseine은 "L'Emploi des temps"에서 未完了(inperfect)는 이미 비롯되어 있으면서 그 終結이 조금도 지적되어 있지 않은 동작을 나타낸다.

… Bourget도 "Psychologie Contemporain"에서… 限界없는, 進行中인, 그러나 아직 완결되어 있지 않은 事件<sup>10)</sup> 이라 했으며 Marjeau는 시작도 끝도 고려하지 않고 동작의 진행(지속)에서 생각되는 것<sup>11)</sup> 예를 들면 불어 동사의 chercher(찾다: 찾고있는 상태, 동작)가 미완료이며 진행중임에 반하여 trouver(찾다: 찾은 결과)는 완료를 나타낸다. 또한 이승녕氏도 "行動이 進行途中이어서…<sup>12)</sup>"(필자 가선)라는 정의를 내렸다. 이상의 규정들을 검토해 보면—

9. 이인모(1970), "用言의 Aspect(樣相)의 研究—古典國語와 現代國語를 中心으로—," 「아시아 문화」, 1. 우석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p. 88—90.

10. J. Maroujeau(1951), Lexique de La terminologie Linguistique, Paris, p. 171.

11. 이인모(1970), pp. 88—89.

12. Maroujeau(1951), p. 116.

13. 이승녕(1961), 「中世國語文法」, 을유문화사, p. 204.

로 지적된 것과 같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것은 미완료라는 범주 안에 지속과 진행이 내포되었음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말에는 지속도 진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결(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는 중지 상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미완료는 동작, 상태변화가 그 귀결점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본 여러가지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속상, 진행상 외에 중지상을 하위범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지속상과 진행상의 차이이다.

진행상(progressive)과 지속상(durative, duratif)—미완료된 동작이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같으나, 과정상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세분할 수 있다. 즉 시간적 한계성을 지닌 것을 진행상, 그렇지 않은 것을 지속상이라고 할 때, 시간적 한계성이란 짧은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동작 자체에서 파악되는 시간상의 동작구간(區間)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지속이란 단일한 동작이라기 보다는 반복되는 동작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일련(一聯)의 상태가 됨으로 임의로 시간적 제한을 할 수 없다.”<sup>14)</sup>

### Ⅲ. —다가, —아(어)서의 시상 의미

II장에서 필자는 국어 시제 체계를 보면, 타당성있게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한 형태소에 내재되어 있는 시제(시간성), 상의 양면성을 인정하자고 하였다. 그 이유는 형태소 —았—이 과거와 완료라는 시간성과 상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았—을 관형법으로 변형시켜 보면 알 수 있다.

- 1) A 는 갔다.→간 A (과거, 완료)
- 2) B 는 떡을 먹었다.→떡을 먹은 B (과거, 완료)

1), 2)는 동작주의 동작을 파악해 볼 때 “먹다”, “가다”라는 동작이 이미 끝났고 발화시를 ‘현재’로 할 때 이미 지난시가 되어서 이 형태소에 二元的인 의미 부여에 두리가 없음을 보여준다.

14. 서정수(1976). “국어 시상 형태의 의미론적 연구.” 『문법연구』, 3집. 문법연구회, 71, 108.

- 또한 1), 2)를 동일 동작주의 연속 동작으로 접속시켜 보자.  
 3) A는 갔다. A는 왔다. → A는 갔다가 왔다.  
 4) B는 떡을 먹었다. B는 떡을 뱉었다. → B는 떡을 먹었다가 뱉었다.

3), 4)는 —았—의 의미 자질로 인해서 1차적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완료된 결과가 —다가르 인해서 중지됨을 보여 준다.

다시 한 번 3), 4)를 —아(어)서에 의해서 접속시켜 보자.

- 5) A는 갔다. A는 왔다. → A는 갔아서 왔다.  
 6) B는 떡을 먹었다. B는 떡을 뱉었다. → B는 떡을 먹었어서 뱉었다.

5), 6)과 같이 완료표지 위에 —아(어)서를 쓸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어)서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시상 의미 자질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다가와 —아(어)서가 지니는 사상 의미를 각각 분리해서 파악해 보자.

### 1. —다가

이 인모(1970)는 이를 종결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양 인석(1975)는 행위의 중단이며 미완료라고 하였다. 이 인모氏의 견해는 최 현배 선생의 “...여태까지 하던 움직임을 그치고 다른 움직임으로...”<sup>15</sup>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양 인석氏는

이 차를 타고 가— {다가, 았다가} 중간에서 내려라.

이 차를 타고 가— {다가, 았다가} 올때는 걸어 오너라.

위 예문에서

—다가는 행위의 중단이며 미완료임에 반하여 —았다가는 행위의 완료를 의미한다<sup>16</sup>”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았다가가 완료가 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완료표지인 —았—때문이며 —다가는 동작·상태가 귀결점을 지향(指向)하는 과정중 중지

15. 최 현배(1977), 「우리 말본」, 여섯번째 펴냄, 서울, 정음사, p. 320

16. 양 인석(1975), “한국어의 접속화,” 「현대국문법」, 남기심외 2人(공편), 대구, 계명대학 출판부, p. 258.

되었음을 나타내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脠의 파악이 화자의 주관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 이를 종결상보다는 미완료상과 이의 하위 범주인 동작·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지속상과 대립하는 중지상을 복합적으로 부여하고자 한다.

## 2. -아(-어)서

- 1) 고기를 낚아서 끓여 먹다.
- 2) 손잡이를 잡아서 돌렸다.
- 3) 너무 먹어서 미안하구나.

1)~3)의 선행 동작인 '낚다' '잡다' '먹다'라는 동작의 귀결점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선행 동작의 결과를 가지고서 다음의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문장으로서 Marjeau의 effectif(結果相)가 되겠으나 동작, 상태의 끝난이란 이미 동작이 아니라 완결된 상태가 드러나 있는 것을 완료상이라고 할 때 구태여 결과상이라는 또 하나의 脠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아(어)서를 넓은 의미의 완료상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 형태소는 완료표지인 -았과 배합될 수 없다는 제약조건을 가진다.

그러나

- 4) 가-(다가)  $\left\{ \begin{array}{l} \text{놀았다①} \\ \text{놀고 있다②} \\ \text{놀아라③} \end{array} \right.$

- 5) 편지를 찢-(어서)  $\left\{ \begin{array}{l} \text{버렸다①} \\ \text{버리고 있다②} \\ \text{버려라③} \end{array} \right.$

4), 5)에서 본 바와 같이 -다가와 -아(어)서 자체가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행 동작 ①②③에 의해서 결정된다.

1)~5)를 종합하면 -다가는 미완료 중지상이며 -아(어)서는 완료상으로 파악되며 시제는 후행 동작에 의한 잉여성을 지닌다.



#### IV. —단/—당, —안(언)/—앙(영)의 시상의미

앞에서 고찰한 —다가와 —아(어)서에 대응하는 본도 방언의 행위연속 접속사로서 —단/—당, —안(언)/—앙(영)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들 접미사의 相의 의미는 공통어의 그것과 동일하나 시제 상으로는 특이한 대립을 보여 준다.

이제 예를 들면서 고찰해 보기로 하자.

##### 1. —단

- 1) ①일하단 가수다(일하다가 왔습니다)  
     ②일하단 감수다(일하다가 가고 있습니다)  
     \* ③일하단 가라(일하다가 가거라)
- 2) ①놀단 자수다(놀다가 왔습니다)  
     ②놀단 잠수다(놀다가 자고 있습니다)  
     \* ③놀단 자쿠다(놀다가 자겠습니다)

1), 2)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에 선행하는 동작의 시제가 후행하는 동작의 모습에 따라 성립되는 문장과 성립되지 않는 문장이 있다는 것이다.

1), 2)의 ①②는 화자의 발화시를 현재라는 기점으로 본다면 ①은 이미 완료된 동작을 말함이고 ②는 아직 계속되고 있는 동작이다. 그러나 ③은 현재에서부터 미래에 행하여 질 동작이다.

그런데 ①②는 문법적인 문장이 되지만 ③은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단이 그에 후행하는 미래적인 동작이나 상태와는 시제 상으로 호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찰을 위해서 —단의 대립형인 —당의 용법을 알아 보자.

##### 2. —당

- 3) \* ①일하당 가수다  
     \* ②일하당 감수다  
     ③일하당 가라
- 4) \* ①놀당 자수다

\* ⑤ 놀당 잠수다

⑥ 놀당 자쿠다

1), 2)의 ①②가 문법적임에 반해서 3), 4)의 ④⑤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후행하는 동작, 상태의 조건은 1), 2)의 ①②와 동일하게 제시하였으나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까닭은 바로 —단과 —당이 내포하고 있는 시제상의 대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승녕(1950)은 “ㅎ단, 가단, 보단…의” “—당”은 aspect에서 imperfect요, durative에 屬할 것이며, “ㅎ단, 가단, 보단”은 perfect의 aspect에 쓰인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면 “—다가”에도 perfect, imperfect의 aspect的 識別이 存在함을 알 수 있다”고 하여 aspect적인 의미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필자는 I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들 접미사를 시제—상(tense—aspect)의 二元的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aspect로 볼 때는 공통어의 —다가와 마찬가지로 미완료상·중지상을 지니고 있으나 공통어의 —다가가 발화시를 현재로 하는 시간상의 전후관계에 —다가가 어느 곳에나 통용되는 것과는 달리 —단은 그 위치를 확실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필자의 이론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좀더 고찰의 영역을 넓혀서 —아(어)서에 대응하는 —안(언)/—연(영)을 살펴 보자.

### 3. —안(언)

5) ① 과기 잡안 먹어찌(고기 잡아서 먹었다)

② 과기 잡안 먹엄찌(고기 잡아서 먹고 있다)

\* ③ 과기 잡안 먹으라(고기 잡아서 먹어라)

6) ① 구두 신연 와선계(구두 신어서 왔더라)

② 구두 신연 완싱계(구두 신어서 오고 있구나)

\* ③ 구두 신연 오쿠다(구두 신어서 오겠습니다)

17. 이 승녕(1960), 濟州道 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國語學論考』, 東洋出版社, p. 366.

5), 6)의 후행 동작은 일단 선행 동작이 완료된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잡다’ ‘신다’의 相은 완료가 된다. 그러나 ③의 경우는 앞의 1), 2)의 ①②와 마찬가지로 장차 일어날 동작·상태와는 시제상으로 호응이 안된다.

그러나

#### 4. -앙(엄)

- 7) \* ④ 괴기 잡앙 먹어찌
- \* ⑤ 괴기 잡앙 먹얼찌
- ⑥ 괴기 잡앙 먹으라
- 8) \* ④ 구두 신엄 와선계
- \* ⑤ 구두 신엄 완싱계
- ⑥ 구두 신엄 오쿠다

3), 4)의 -안/-엄과는 반대로 -앙/-엄은 현재를 기점으로 전개되는 후행 동작에 호응한다.

이상에서 1)~8)의 -단/-당, -안(언)/-앙(언)은 각각 미완료 중지 그리고 완료의 aspect를 지니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시간상의 전후 관계는 서로 반대되는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대립 현상의 요인은 바로 형태(morphe)-ㄴ과 -ㅇ의 독특한 기능에 의한 것이다. 이제 형태 -ㄴ과 -ㅇ의 용법을 알아 봄으로써 -단/-당, -안(언)/-앙(엄)의 시상 의미를 확실히 하자.

#### 5. -ㄴ의 용법

-단/-당, -안(언)/-앙(언)의 제 2 형태부인 -ㄴ과 -ㅇ은 화자의 시간 개념과 관계가 깊다.

예를 들면

- 1) ①가이 차 탄 가베찌(그 아이 차 타고 가버렸다)
- ②아들 7라 죽으렐 해수다(아들에게 죽으라고 했습니다)
- ③오랏단 가수다(왔다가 갔습니다)
- ④나도 죽젠 해수다(나도 죽으려고 했습니다)

⑤울으난 때러껴(우니까 때렸다)

2) ①자이 차 탄 감쩌(저 아이 차 타고 가고 있다)

②아들 7라 죽으랜 햄수다(아들에게 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③나뿌덴 햄수다(나쁘다고 하고 있습니다)

④가이도 공부 하젠 햄쩌(그 아이도 공부하려고 하고 있다)

⑤가단 쉬엄수다(가다가 쉬고 있습니다)

3) ①간 보난 잠십데다(가서 보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②가단 보난 울엄서라(가다가 보니까 울고 있더라)

③밤 먹어선제(밤 먹었더라)

위 문장에서 1)의 ①~⑤는 후행되는 동작이나 발화시 현재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며 2)의 ①~⑤도 선행 동작의 相과는 관계 없이 후행 동작·상태가 발화시 이전에 시작되어 현재 계속되고 있으며 3)은 후행하는 동작의 완료 또는 계속에 관계없이 회상법인 문장에 호응하고 있다.

위의 세 경우의 쓰임을 종합하면

형태 - L은

1. 후행 동작의 상태가 발화시 현재 완료되었거나
2. 후행 동작이 발화시 현재 지속되고 있거나
3. 회상문에 쓰인다.

이렇게 볼 때 형태 - L은 완료·미완료라는 상의 범주로 해석하기 보다는 화자의 심리적 시간의 전후 관계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 6. -O의 용법

-O의 쓰임은 -L보다 범위가 넓다.

그 예를 들면

4) ①밤 먹엄싱게(밤 먹고 있구나)

②자인 돌 7란 감싱게(저 아이는 말하고서 가고 있구나)

③어싱게(없구나)

④아이가 울멍 갈쩌(아이가 울면서 간다)

⑤ 나쁘당 할수다(나쁘다고 하고 있습니다)

5) ①오랑 구경 흥당 갑씨(와서 구경 하다가 가십시오)

②나가 가당 만나쿠다(내가 가다가 만나겠습니다)

③잘 살랭 허라(잘 살라고 해라)

④·르민 가쟁 혼다(말하면 가려고 한다)

6) ①가당오당 들릅네다(가다가 오다가 들립니다)

②신문 보멍 밥 먹으면 체홀이여(신문 보면서 밥 먹으면 체할 것이다)

③오멍 보난 울엄서라(오면서 보니까 울고 있더라)

4)의 ①②는 지속되고 있는 동작의 상태를 발화시와 동일하게 잡은 것이며 ⑤⑥은 이미 완료된 동작·상태의 모습을 관찰한 관찰시를 발화시와 동일하게 잡은 예이다. 따라서 ①~⑥의 —○의 —○은 청자에게 전달하는 화자의 심적표현(mood)에 시간성을 내포한다고 하겠다.

5)의 ①~④의 —○은 명령문 ①③과 의도법 ②④에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 문장의 의미자질이 [+미래]를 지니므로 —○이 미래시라는 것은 예견 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이 미래로 쓰이기 위해서는 후행하는 동작·상태가 의도법이나 명령문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6)의 ①은 습관적인 동작을 말하며 ②는 진리, ③은 동작주의 두 동작(오다, 가다)이 동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시간의 전후 관계를 설정하기가 모호하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진리나 습관, 관습을 나타내는 언어표현에 있어서는 시간의 영역을 어느 한 곳에 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6)과 같은 문장 내의 시제는 시간을 초월하는 부정시(不定時)를 따로 설정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이상을 종합하면 형태 —○은

1. 발화시 현재 지속되고 있는 동작·상태
2. 발화시를 기점으로 미래에 일어날 동작·상태
3. 부정시에 호응한다.

### 7. -ㄴ / -ㅇ 의 혼용

이상에서 -ㄴ과 -ㅇ의 시간상의 위치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ㄴ과 -ㅇ의 쓰임에서 중복되는 제약조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 2-ㄴ은 발화시 현재 지속되고 있는 동작·상태에 호응.

6· 1-ㅇ은 발화시 현재 지속되고 있는 동작·상태에 호응.

이것이 본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본도 방언의 언중들 사이에서 -ㄴ과 -ㅇ을 혼용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마리가 되리라 생각한다.

1) { 잡안 감수다  
잡앙 감수다

2) { 가젠 햄수다  
가쟁 햄수다

3) { 어멍 신디 가렌 흥민  
어멍 신디 가랭 흥민

4) { 얼덴 ㄱ람찌  
얼텅 ㄱ람찌

5) { 감신계  
감상계

6) { 먹어신계  
먹어상계

1), 2), 4)는 후행 동작·상태가 화자의 발화시를 현재로 하여 지속되고 있으며 3)은 발화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질 동작을 나타내며 5), 6)은 동작·상태의 관찰시가 발화시와 동일한 예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ㄴ과 -ㅇ을 혼용하는 이유는 인간 개인의 심리적 시간의 차이에서 온다고 보겠다. 인간의 심리적

18. 2), 3), 4)의 -벤 / -벵, -덴 / -텅, -덴 / -뎅은 narration 形이며 -벤 / -벵은 조모범 형태소와 동음의역태소(homophonous morpheme)이다.

시간 개념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개인차가 있기 마련이다. 이 개인차는 時區間(time interval)에 대한 판단이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sup>19)</sup> 따라서 발화시를 현재로 할 때의 현재란 Otto Jespersen가 설정한 객관적인 자연 시간의 0의 점으로서의 순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幅을 지닌 영역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화자가 선행 동작·상태와 후행 동작·상태간의 시간상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시제가 달라지게 된다.

즉 후행 동작에서 선행 동작간의 時區間을 길게 파악할 때는 선행 동작은 이미 지난시에 일어났음을 인식하고, 발화시 영역내로 인식할 경우는 현재라는 시간 영역으로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본도 방언의 -ㄴ과 -ㅇ을 현재 지속되고 있는 동작·상태에 혼용하여 사용되는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이 언중의 심리적 시간의 판단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겠다.

## V. 결론

이상에서 본도 방언의 시상의미를 행위 접미사의 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살핀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다.

1. 한 형태소의 시상의미 분석은 시제-상, 상-법 등의 二元的 구조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도 방언의 -단/—당, —안(언)/—앙(영)의 시상의미 또한 二元的 구조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2. —단/—당, —안(언)/—앙(영)의 시제는 화자의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과거 대 미래로 대립되며 이 시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형태(morph) —ㄴ과 —ㅇ이다.
3. —단/—당, —안(언)/—앙(영)의 相은 전자를 미완료 중시상, 후자를 완료상으로 한다.
4. 공통어의 —다가, —이(어)서는 후행하는 동작의 모습에 따라

19. Bull, W. E(1968), Time Tense and The Verb, 3rd-ed., (UCPL) Vol. 12, Univ. of California Press, pp. 4-14에서는 시간의 속성을 셋으로 분류하고 있다. 1) linearity(線型) 2) durational infiniteness(지속성 무한성) 3) divided into segments(분절 가능성) 그의 personal time의 측정은 개인의 정서(emotions)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서 시제가 결정되지만 —단/—당, —안(언)/—앙(영)은 형태소 자체가 시제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 —앙(영) 뒤에는 반드시 발화시 현재 미완료이거나 발화시 이후에 행하여질 동작이 수행하며 —단, —안(언) 뒤에는 과거 또는 완료적인 동작과 발화시 현재 미완료적인 동작이 선택적으로 후행한다. 여기에 —ㄴ과 —ㅇ의 혼용 현상이 일어난다.

5. —ㄴ과 —ㅇ의 혼용 현상은 제주방언 諸賢들 개인의 심리적 시간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볼수 있다.

즉 발화시를 순간적인 점으로 보다는 시간幅을 지닌 영역으로 볼 때 사건과 사건간의 時區間에 대한 시간 측정과 판단이 개인 또는 환경에 따라서 달리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 〈參考文獻〉

1. 김 석득(1974), 「한문연구」, 1, 연세대학교 한문문화연구소.
2. 남 기삼(1975) "現代國語 時制에 關한 問題," 「現代國語文法」, 남기삼외 2人(공편), 대구, 계명대학 출판부.
3. 서 정수(1976) "국어 시상 형태의 의미분석 연구," 「문법연구」, 3집, 문법연구회.
4. 양 인석(1975) "한국어의 접속화," 「現代國語文法」, 남기삼외 2人(공편), 대구, 계명대학 출판부.
5. 이 승녕(1960) "濟州道 方言의 形態論의 研究," 「國語學論政」, 東洋出版社.
6. ——— (1961) 「中世國語文法」, 을유문화사.
7. 이 인모(1970) "用語의 Aspect(樣相)의 研究—古典國語와 現代國語를 中心으로—," 「아시아 문화」, 1, 우석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8. 최 현배(1977), 「우리 말본」, 여섯번째 펴냄, 서울, 정음사.
9. Bull, W. E.(1968), Time Tense and The Verb, 3rd. ed., (UCPL), Vol 9, Univ of California Press.
10. Hockett(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 Y.
11. J. Lyons(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 Press.
12. J. Maroujeau(1951), Lexique de La terminologie Linguistique, Paris.
13. Otto Jespersen(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